

사막여우 야 사랑해!



다섯 살 박민아는 미국학교에 다니다가 작년에 처음 한국학교에 왔을 때, 너무 좋아서 매일 한국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한국어만 쓰다가 갑자기 영어로만 말하는 미국학교를 가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재미있게 한국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한국학교에 가지못해 너무 속상합니다. 민아랑 한국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윤우입니다. 윤우는 장난꾸러기이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윤우를 요즘 만나지 못해서 섭섭합니다.



그래도 엄마랑
집에서
한글쓰기
공부를 하니까
좋습니다.
엄마는 민아가
천천히 쓰거나
잘못써도
혼내시지

않습니다. 민아는 오른손 보다는 왼손으로 글씨를 예쁘게 더 잘 씁니다. '가'부터 '하'까지 많이 쓰는 연습을 하고 있고, 참 좋은 말이라는 노래 가사도 쓰고 있습니다.

<https://youtu.be/Y5LvdZeN4tk>

민아가 부른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민아의 글:

사막에서 텐트 지고 밥 먹고 전갈보고
사막여우 보고 그리고 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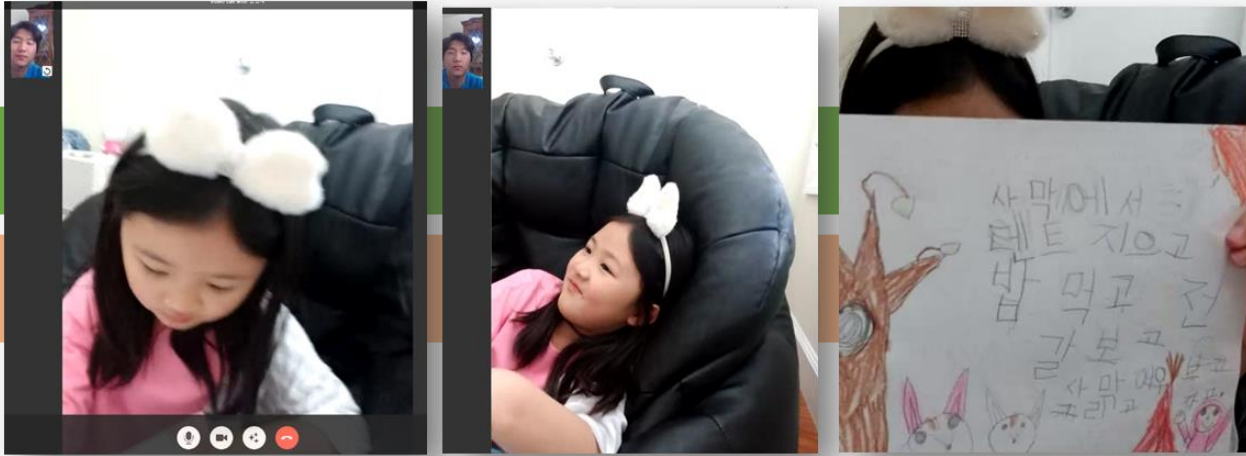
아빠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해 주십니다. 지난번에는 아빠랑 같이 교회에 갔다가 마이크를 써 보았습니다. 민아의 목소리가 크게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집에서 연습했는데, 교회에서 마이크를 대고 노래했더니 목소리가 예쁘고 크게 들려서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빨리 커서 학교에서 하는 동요대회에도 나가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민아는 사막여우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튜브에서 사막여우를 보고난 후부터 사막여우를 동물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막여우가 아플 때 약을 줘서 빨리 낫게 해 줘야 하거든요.

민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빠가 만들어주시는 빨간 파스타입니다. 한국음식 중에서는 할머니가 만드신 파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셔서 차로 멀리 다니실 때가 있습니다.



<민아와 카카오톡 화상채팅으로 인터뷰 하고 있는 윤도웅>



지난 토요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 차를 타고 다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오른쪽 코에서 빨간 피가 나와서 조금
무서웠지만 엄마 아빠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친절하게 잘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매일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만 재미있는 공부도 많이 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좋습니다.

취재: 11 학년 윤도웅 (5/11/2020)

Chloe Park, 5 years old, attended Korean school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she liked it so much that she wanted to go every day. Transitioning from only using Korean at home to speaking English at school was very difficult for Chloe. She is upset because due to the Coronavirus, Korean school closed down. Chloe's best friend in Korean school is Yoon-woo. Yoon-woo is very silly and fun to be around. However, Chloe is sad that she hasn't seen Yoon-woo in a while.

Still, she likes to study Korean writing at home with her mom. She does not get upset if Chloe writes slowly or writes it wrong. Chloe writes prettier with her left hand rather than her right. She practices writing a lot from '가' to '하', and also writes lyrics from the song, "참 좋은 말 (Very Good Words)"

Her dad installs a camera so that he can worship online at church. Last time, she went to church with her dad and used a microphone. Chloe liked hearing her own voice through the loudspeakers. She sang a song called,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You're Born to be Loved)". After practicing at home, she sang with a microphone at church; She heard her pretty and loud voice, and was so excited and happy. She wants to enter the singing competition at school as soon as possible. <https://youtu.be/Y5LvdZeN4tk> A song sung by Chloe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While Chloe was home, she also drew a lot of pictures; Chloe loves drawing fennec foxes. After watching desert foxes on YouTube, fennec foxes have been her favorite animal. So she wants to become a vet when she grows up later. When the fennec fox is sick, she wants to give him medicine to make them better.

Chloe's favorite food is her father's red pasta. Among Korean food, she likes the green onion Kimchi that her grandmother made. Her parents are busy with work, so there are times they go far. Last Saturday, Chloe was very tired because she stayed all day in her parents' car. So she had a nose bleed in the evening. She was a little scared by the red blood coming out of her right nostril, but she liked it because her parents wiped it clean and were kind to her.

Chloe lives with her parents at home without going to school, but she enjoys studying a lot and getting a lot of love from her parents.

Reported by Joshua Yoon, 11th grader at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